

전국 윈드서핑대회 여수유치 GS칼텍스 김동현 과장

“엑스포 여수, 해양 스포츠 메카로도 키워야죠”



오는 10월 1~3일까지 여수 소호요트장에서 제1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윈드서핑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회가 창설된지 19년만에 전남지역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한 시민의 각고의 노력 끝에 유치됐다.

GS칼텍스 여수공장 설계 1팀 김동현(56) 과장은 올해 초 발이 닳도록 서울과 여수를 오갔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한 여수에 걸맞는 해양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일념에 시간을 쪼개 국민생활체육회를 설득했다.

소호요트장서 10월 1~3일 열려

타 도시가 조직적으로 유치전에 뛰어 든 반면에 김 과장은 오로지 혼자였지만 해양엑스포를 앞세워 공감대를 끌어내 유치에 성공했다. 예산

도 부족하고, 윈드서핑 인적 자원도 턱없이 모자라 예를 먹었지만 국민생활체육회는 전남윈드서핑연합회 결성을 조건으로 유치를 승인했다. 김과장은 “윈드서핑은 해양스포츠의 꽃”이라며 “전남지역에서 해양엑스포를 맞아 처음 열린다는데 의미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윈드서핑연합회는 여수시를 비롯해 순천·목포·광양·무안 등이 가입해 200여명이 활동 중이고 고흥·완도·장성에서도 결성 중에 있다.

김 과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전남지역 윈드서핑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대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 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약 1억원이 소요되는 윈드서핑 전국대회는 현재 여수시로부터 3500여만원의 예산 지원을 약속

받는데 그쳐, 대회 관계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김 과장은 “대회를 어렵게 유치한만큼 전남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란다”며 “400여명이 참여하는 이 대회의 경제적 가치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적극 홍보·지원 바라

25년전 우연히 한 학생이 윈드서핑을 타는 것이 좋아 윈드서핑을 시작한 김 과장은 회사 동호회를 창립하고 현재 여천NCC, 여수클럽, 풍만회 등 여수지역 윈드서핑 동호회를 이끌고 있다. 김 과장은 또 매년 여름 소년소녀가장 등을 초청해 무상으로 다양한 하계 스포츠 활동을 기회를 제공하는 등 숨은 봉사자로 알려져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영 남여 102명 알몸 물리코스터

자선기금 4000만원 모았다

영국에서 가장 많은 100여명이 알몸으로 물리코스터를 탔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열정이 넘치는 102명이 남동부 예식스의 사우스엔드 해안가 ‘어드벤처 아일랜드’에서 옷을 벗고 물리코스터에 올라타 2004년 영국 스태퍼드셔 ‘알몸 타워’에서 70명이 세웠던 이전 기록을 깼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트레이시 존스는 102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태우려고 물리코스터가 세 번 운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알몸으로 물리코스터에 오른 이유는 사우스엔드 병원 자선단체 모임인 ‘절친한 친구들의 호소’의 기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절친한 친구들의 호소’의 바버라 워너는 “많은 사람과 언론 앞에서 옷을 모두 벗으려면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참가자들을 치켜세웠다. 그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2만2천 파운드(4100만원 상당) 이상의 기금을 모으기 위해 용감하게 옷을 벗은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치 담그기·한복입기·사물놀이 배우러 왔어요”

日 명문대학생들 조선대서 ‘한국문화체험’

‘가깝고도 먼 이웃’인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일본의 명문대학생들이 광주를 방문했다.

일본 와세다 대학생 9명과 토호쿠 대학생 2명 등 11명의 학생들은 9~28일까지 ‘2010 하계 일본자매대학 학생 초청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조선대를 찾았다. 이들의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은 10일 오전 조선대 중앙도서관 7층 영상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한국어 교육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일본 대학생들의 한국어교육은 한국어시험을 실시해 반편성을 한 후 일본어가 가능한 한국어 강사가 읽기(독해), 말하기(회화), 쓰기(작문) 3단계로 구분하여 기본적인 회화를 공부하게 된다. 또 태권도 배우기·김치 담그기·사물놀이 배우기·한복입기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이해하는 한국문화체험 한다. 특히 17일과 19일 열리는 ‘Cultural Exchange Class’는 참가학생 스스로 자기 나라의 문화를 상대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소개하는 시간으로 일본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게 된다.



뿐만 아니라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의 가정생활을 직접 경험하면서 조선대 학생들과 우정을 나누기도 하며 순천만과 낙안읍성을 둘러보고 선암사 템플 스테이에 참여하는 수학여행도 다녀올 예정이다.

조선대 관계자는 “일본 대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한편 대학 및 국가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조선대 학생들의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하고 리더십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배우 김현주, 부친상 조의금 굿네이버스 기부

배우 김현주가 부친상 조의금을 아시아 빈국 발글라데시의 도서관 건립을 위해 기부했다.



지난 달 7일 부친상을 당한 김현주는 최근 조의금을 국제구호기구 굿네이버스에 기탁했다고 굿네이버스측이 8일 밝혔다. 발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의 빈민가에 건립 중인 보육원 도서관을 지원해 줄 예정이다.

크리에이션 등 빈민가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내방

▲강왕기(광주시 문화체육정책실장)씨 ▲정재현(수시교통국장)씨 ▲홍진태(수차행정국장)씨 ▲김종호(수일지리창출지원관)씨

광주서부교육청 전북 완주서 Wee캠프



광주서부교육청(교육장 이기우) 광산Wee센터에서는 11일까지 3일간 전북 완주군 청정인성수련원에서 학생 및 학부모 80여명을 대상으로 Wee 캠프를 실시한다. <광주교육청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재광 벌교상고 총동문회(위원장 임병학)=10일(화) 오후 6시 30분 광주 상록회관 3층(무궁화홀) 010-2689-9920.

종친회

▲한국 범최씨 대종연합회(회장 최남용) 월례회=11일(수) 오후 6시 30분 금남로 5가 연합회 사무실. 062-236-3220.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24시간 전화상담(1588-9191)=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일반 면접 상담, 위기 가족문제, 자녀문제, 자살 등 상담. 062-223-9191.

▲사주 쉽게 배울 분 개인·단체 환영=광주시 북구 우산동 자담역 라화회. 062-263-0208.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위기지원(출산·양육·응급상황발생시 아이 병원비·생필품),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 (http://gdongfc.familynet.or.kr/)

모집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엠마우스복지관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에서 여성장애인 및 자녀 대상으로 18일(수)까지 총 8회 경제교육프로그램 진행예

정 현재 모집. 여성장애인 가족체험 프로그램은 오는 13일(금) 나주 중흥골프스파에서 30명 예정. 선착순 모집(참가비 무료) 062-524-7728.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 모집=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인종이나, 종교, 외국문화에 대한 편견이 없는 가정 등. 손님용 숙박 및 침구제공, 아침 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문의 광주시 관광진흥과(062-613-3633), 광주국제교류센터(062-226-2734)

▲베네스다노인요양원 어른심을 모심=노인장기요양보호복지기관으로 팬션형의 최신 시설로 건축, 비영리법인 없이 최신 시설을 이용하며 전문적인 직원들과 자식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모심. 061-371-

8090.

▲국립나주병원 자원봉사자 모집=2주 1회 정기적으로 목욕 도우미 및 이모용 서비스, 정서지원 및 함께 운동하기, 노래 및 요가교실, 스포츠댄스 및 에어로빅, 자원자적은 대학생 및 현업 종사자. 문의 061-330-4169.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 수시 모집=중앙 초등학교 아침 5시30분~7시 30분. 010-9877-6166.

▲유마 축구클럽 회원 모집=건강한 생활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 환영, 용산 초등학교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7~11시까지. 011-607-7462.

▲마술회원 모집=매주 토요일 오후 1시~2시20분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디지털카메라 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재봉틀 홈패션 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전 10~11시50분,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동구문화센터 겨울학기 문화강좌 회원모집=홈페이지 www.maj.kr 또는 동구 문화센터. 062-225-8700.

▲김순덕 노래교실회원모집=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12시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김전경 노래교실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2시~3시30분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재봉틀 홈패션 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전 10~11시50분,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동구문화센터 겨울학기 문화강좌 회원모집=홈페이지 www.maj.kr 또는 동구 문화센터. 062-225-8700.

▲김순덕 노래교실회원모집=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12시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김전경 노래교실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2시~3시30분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재봉틀 홈패션 회원모집=매주

부음

▲김금남씨 별세 주원·진희씨 부친상=발인 11일(수)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홍양래씨 별세 서유열·홍순·영주·화일·오전 10시30분~12시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김전경 노래교실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2시~3시30분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조중현씨 별세 연창·연진·연준·경선씨 부친상=발인 10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삼가 故人의 冥福을 밧니다

故 희영매님(남/59세)	주 희경민 女 희경아 未亡人 김복여	호별 40호 발인 8월11일 장지 영락공원
故 조경님(남/80세)	주/부 박계수/이계수 女/부 박순애/유구순 장자 박정성 부덕/노방수	호별 40호 발인 8월11일 장지 남양원구묘지
故 차영민님(남/78세)	주/부 차복현/김희정 장자 차현/인길자 女/부 차현숙/박경택	호별 101호 발인 8월10일 장지 영락공원

미음까지 편안함 - ☎ (062)227-4000
금호장례식장 넓은주치장·정갈한음식!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그린장례식장 24시간 대기 / (062)250-4455

고인의 명복을 밧니다

▲김종구·홍철 씨 모친상 발인: 8월11일(수) 8시 30분 장지: 장성군 북이면선영
연락처: 250-4407

▲김종관·홍희씨 부친상 발인: 8월10일(화) 8시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50-4403

▲김준길·순서·춘복 씨 모친상 장례제·고제규 반부상 발인: 8월11일(수) 9시00분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50-4410

장지: 보성군 벌교선영 연락처: 250-4412

▲미망인 김기명 순자 김장동·원국·영대·종필 씨 조모친상 발인: 8월11일(수) 00시00분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50-4403

▲말 꼭죽음·경미씨 부친상 윤민희·신형철 씨 반부상 발인: 8월11일(수) 9시00분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50-4410